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의 매개효과

추 경 진¹⁾

최 중 옥²⁾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 366명(남: 168명, 여: 19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은 각각 단순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개인의 자기체계 손상 및 우울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체계 손상 및 우울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체계 손상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자기체계 손상, 우울, 자살생각, 청소년

1) 교신저자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임상심리실, 임상심리사 (E-mail: aquastar-@hanmail.net)

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임상심리실, 임상심리전문가

I. 서론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28.7명으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1위이며(OECD, 2015), 이는 2004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로써, 자살은 자살한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안고 가야할 사회적인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10~19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4년 3.7명에서 2014년 4.5명으로 10년간 22% 증가하였고, 자살은 2008년도부터 6년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고 있다(통계청, 20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0)에서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31.5%와 고등학생의 29.3%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하였고, 그 가운데 20.3%의 중학생과 16.0%의 고등학생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와 Fitzmaurice(2006)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15세에 자살생각을 가졌던 청소년은 자살생각이 없던 청소년에 비해 30세에 이르러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청소년 시기 자살의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미래의 자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이 되므로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자살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등을 비롯한 여러 환경적, 심리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을 밝혀왔다(강승호, 문은식, 차미영, 2011; 우채영, 방아청, 정현희, 2010; Wilson et al., 1995). 그 중에서도 어린시기의 외상적인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중요하게 다뤄져왔는데, 특히 가족 내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3배로 높았고(Perkins & Jones, 2004), 자살생각의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Berenson, Wiemann, & McCombs, 2001)과 같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청소년 및 성인기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의 질, 문제해결능력,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부정적 정서와 같은 다른 변인들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박경, 2005; 홍나미, 2012; Atrah, Langhinrichsen, Bowers, & O' Brien, 2007).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정신생리 영역 등 심리적 영역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Lee & Hoaken, 2007), 시간이 지나 더 이상 학대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학대 경험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청소년기 자살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연구의 초점은 외관상의 피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였고, 개념상 정의가 모호하고 양적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장용환, 송지혜, 2010; 조옥자, 2005). 정서적 학대란 “아동을 정서적, 지적 불구로 만들고,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주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주 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패턴”이며(고성혜, 1992), “자녀를 모독하는 극단적이고 습관적인 말이나, 책임전가, 신체적인 위협 등을 포함한 적대적, 거부적 학대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Steele, 1980: 김인혜, 송현주, 2014에서 재인용). 이처럼 학자들마다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공통적으로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언어적인 모독, 정서적 위협 및 가학을 포함한 파괴적 상호작용 패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동기에 겪는 정서적인 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섭식문제, 낮은 자존감, 자해행동과 같은 심리적 기능의 손상을 장기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고성혜, 1992;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Kaplan, Pelcovitz, & Labruna, 1999),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상관은 일관적이지 않은 반면, 정서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높은 상관은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경, 2005; Croyle & Waltz, 2007). 그러나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모든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자살생각으로의 경로에 기여하는 변인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과정에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애착대상으로부터 반복적,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대인 간 폭력이며, 학대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가 단일 외상에 기초하는 기존의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합외상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장희순, 이승연, 2013; Cook et al., 2005). 여러 선행 연구들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같은 복합외상의 영향을 애착, 생리, 해리, 정서조절 결함, 부정적 인지 등 낱낱의 증상들로 단순히 범주화시켜왔으나, 이는 임상장면에서 초점화된 치료적 개입 및 개입논리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치료적 함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이에 따라 이러한 하위영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이 가운데 아동기에 발생한 외상은 자기(self)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공고화되기 전 발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발생하므로, 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장애를 자기인식 및 자기조절 등 ‘자기체계의 전반적 손상’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지속되어왔다(Courtois & Ford, 2009; Fonagy & Target, 2006; Herman, 1992). 자기관 “한 개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William, 1890: Herman, 1992에서 재인용), Harter(1999)는 심리적 외상이 이러한 자기 형성 및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며, 아동기 학대로 인한 외상 반응으로 주체적 자기(I-self)손상, 대상적 자기(Me-self) 손상, 부정적인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 자기처벌적 행동(self-punitive behavior), 거짓자기(false-self) 등을 포괄하는 자기체계의 전반적 손상(deleterious effects on self-system)이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심각한 신체 및 심리적 학대를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당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은 외상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흔히 해리 방어기

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해리 방어기제는 외상 경험이 발생한 당시에 자기방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피해자는 자기 발달에서 중요한 자기지각, 행위자로서 자기감, 자기지속성, 자기통합성 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학대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자신에게 돌리게 되어 과도한 자기비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낮은 자기 가치감, 수치심 및 죄책감 등의 고통스런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안현의 등, 2009). 장진이와 안현의(2011)는 이를 발전시켜 주체적 자기손상, 대상적 자기손상, 자기조절 손상, 관계적 자기손상으로 구성된 외상화된 자기체계(traumatized self-system)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따른 자기체계 손상의 하위 영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적 자기(I-self) 손상은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며 자기자각, 자기주도성, 자기지속성, 자기통합성 등의 손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아동기 학대경험과 같은 외상으로 자신 내부에서 경험되는 것에 대한 자기자각 능력이 손상되고 자신의 통제력 및 예측력이 극단적으로 좌절되어 자기 주도성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Cicchetti, 1989; Kim & Cicchetti 2006에서 재인용) 기억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자기지속성 및 전체로서 통합된 자기감이 손상된다는 것이다(Harter, 1999). 다음으로 대상적 자기(Me-self) 손상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용이 형성되는 대상적인 자기가 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적 자기손상의 특징은 자존감 저하, 자기비난, 자기증오 등을 포괄하는 부정적 자기감이며(Allen, 2001),

대표적인 자의식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도 연결된다(Allen, 2005). 다음으로 자기조절(self-regulation) 손상은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 정서 및 행동 등을 조절하는 의식적인 노력과정의 실패를 의미한다(Cook et al., 2005). 마지막으로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 손상은 자신 및 타인,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이 왜곡된 상태를 의미하며(Salo, Punamaki, & Qouta, 2004), 타인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혼란된 애착 유형의 특성을 포괄한다(장진이, 안현의, 2011).

건강한 자기체계는 아동기 자기의 초기발달을 토대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업인 정체성 발달과 함께 형성된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주 양육자가 가하는 학대와 같은 외상적 경험은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황소연, 방희정, 2012), 자기의 초기발달을 저해시키고 정체성 발달을 어렵게 하여 청소년기의 건강한 자기체계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기체계 손상에 의한 영향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주목해왔는데(김인혜, 송현주, 2014; 한수경, 정남운, 2014), 자기체계를 구성하는 자존감, 자기정체감, 자기조절 등의 손상이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김효정, 2011; 박경, 2004; 송영이, 송로사, 2015; 임숙빈 외, 2014; 장용환, 송지혜, 2010; 전한가람 외, 2013), 자기에 대한 전체적 구성개념으로써 자기체계가 손상될 경우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 대

상으로 한 조은경(2015)의 연구에서 자기체계 손상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자살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서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김현순, 김병석, 2008;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추경진과 이승연(2012)의 연구에서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가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 특히 청소년 시기에 우울을 통해 자살을 하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우울은 정서적 학대경험의 결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로 알려져 있다. Al-Fayez, Ohaeri와 Gabo(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던 청소년의 우울점수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없었던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김은경과 이정숙(2009)의 연구에서 초기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아동 후기의 우울에 직, 간접적인 효과를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우울은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igfusdottir, Asgeirsdottir, Gudjonsson, & Sigurdsson, 2013),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복기와 이성진(2012)의 연구에서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우울을 매개로 하는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경험 자체로 우울해지기보다는 아동기 외상반응으로 인해 피학대 아동의 인식과 사고 등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어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가 심화된다고 보았다(김은경, 이정숙,

2009; 최아라, 2015). 일찍이 Battle, Jarratt, Smit와 Precht(1988)는 자기체계의 발달적 변화가 우울의 병인에 영향을 주며, 부정적 자기인식 혹은 낮은 자존감은 많은 우울증상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Abramson, Metalsky와 Alloy(1989)의 우울-무망감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삶의 사건들은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이는 우울 증상들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Kim과 Cicchetti(2006)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경험이 성인의 주체적 자기손상 및 대상적 자기에 손상을 초래하며 우울증상에도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손상이 회복될 때 우울증상이 감소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울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기대, 평가, 낮은 자기주도성 등으로 심화될 수 있으므로 우울에 대한 자기체계손상의 영향력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자기체계의 손상과 우울에 각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매개변인만을 고려하였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복합외상 후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후유증으로써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을 포함시키고 이들 간의 전체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후 청소년기에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학대경험과 현재의 자살생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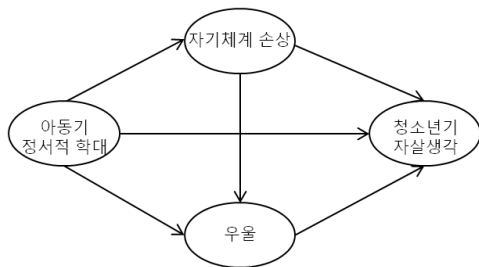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에서 변화 가능한 요인을 찾아 보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자기체계 손상, 우울,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자기체계 손상, 우울, 청소년기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의 단일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중학교 2, 3학년과 3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학생들 522명(총 610부 중 약 86%)에 한하여 설

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57명(11%)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99명(19%)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66명의 자료(남: 168명, 45.9%; 여: 198명, 54.1%)를 최종 분석하였다($M = 16.05$ 세, $SD = 2.81$).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4세 50명, 15세 55명, 16세 103명, 17세 142명, 18세 이상 16명이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41명(11.2%)을 제외하고는 ‘중간’ 이상(중, 중상,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303명(82.8%)은 부모님 모두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4명(3.8%)은 아버지 하고만, 41명(11.2%)은 어머니하고만 산다고 응답하였으며, 8명(2.2%)은 부모님 외의 다른 보호자와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정서적 학대

고성혜(1992)가 제작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척도로부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24개 문항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 척도는 동기와 관련된 학대 영역(예, ‘부모님은 꾸중을 듣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먼저 나에게 욕부터 한다.’),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학대 영역(예,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모님이 나를 꾸짖은 적이 있다.’), 행동 차원의 학대 영역(예, ‘부모님이 나에게 “나가 죽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으로 분류된다. 13세 미만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각 문항과 관련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표시하도록 하며, Likert식 4점(1-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향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하위요인인 동기는 .76, 행동의 결과는 .89, 행동 차원은 .89로 나타났다.

자기체계 손상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자기체계 손상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장진이와 안현의(2011)가 개발한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Traumatized Self-System Scale: TSSS)를 사용하였다. 총 58문항으로 주체적 자기 손상(자기지속성, 자기자각, 자기반성, 자기주도성, 자기통합성; 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없다.') 24문항, 대상적 자기 손상(부정적 자기, 자의식-죄책감, 자의식-수치심; 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 15문항, 자기조절 손상(과잉 자기조절, 과소 자기조절, 자기파괴적 행동; 예, '기분이 안 좋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다.') 15문항, 관계적 자기 손상('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할까봐 신경을 쓴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간 외상으로 인한 자기체계의 손상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척도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 하위요인인 주체적 자기 손상은 .86, 대상적 자기 손상은 .89, 자기조절 손상은 .82, 관계적 자기 손상은 .84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척도(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최상진, 전경구,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한다. 총 20문항이며(예, '우울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하여 세 하위차원(우울1, 우울2, 우울3)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가 하위차원이 없는 단일차원의 도구였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지그재그 묶는 방식으로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이며(0: 드물게, 3: 거의 대부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4, 8, 12, 16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Kovacs와 Weissman(1979)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SI: Scale for Suicide Ideation)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살 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문항은 '실제로 자살시도를 할 욕구가 있는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나?'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Likert식 3점(0-2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자료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강승호와 동료들(2011)의 연구와 동일하게 자살욕구(예,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자살태도(삶에 대한 태도; 예, ‘자살생각이나 소망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자살준비(예,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는가?’)로 명명되는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9, 하위요인인 자살욕구는 .85, 자살태도는 .79, 자살준비는 .8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3주 간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2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에서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가 이루어졌다. 설문은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효과에 의해 불성실하게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척도들의 순서를 달리한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설문지와 함께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고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중 일부는 자살위험을 가진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마친 청소년에게 자살의 위험과 관련된 경고 단서와 자살충동을 느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주위 반응이나 시선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

해 적절한 간격으로 떨어져 앉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먼저, SPSS 19.0프로그램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관련 기술 통계치를 조사하고,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와 같은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AMOS 19.0, Mplus 6.0프로그램으로 측정모형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적합도 지수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각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의 경우 그 값이 .90이상인 경우,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다음으로,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빠르고 사용이 편리함과 동시에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인 복잡한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할 필요 없이 신뢰구간을 구하여 쉽게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Fan, 2003).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1,000번의 부트스트랩 표집을 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신뢰구간이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고, 이 때 bias-corrected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정서적 학대, 자기체계 손상, 우울, 자살생각의 각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정규 분포성을 검토하였고, 본 연구의 자료는 첨도가 7, 왜도가 3보다 크지 않으면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적 학대, 자기체계 손상, 우울 및 자살생각은 모두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서적 학대는 자기체계 손상($r = .46, p < .01$), 우울($r = .22, p < .01$), 자살생각($r = .21,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서적 학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체계 손상, 우울, 자살생각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체계 손상은 우울($r = .44, p < .01$), 자살생각($r = .41,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울은 자살생각($r = .37, p < .01$)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1. 연구변인 기술통계

($N = 366$)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적 학대	동기	6.87	2.32	1.10	1.11
	행동의 결과	10.60	4.12	1.41	1.76
	행동의 차원	13.48	4.26	2.14	6.46
자기체계 손상	주체적 자기 손상	8.39	4.79	.25	-.45
	대상적 자기 손상	16.06	10.58	.13	-.82
	자기조절 손상	7.06	3.86	.11	-.82
	관계적 자기 손상	16.09	9.32	.32	-.99
우울	우울 1	6.78	5.62	.99	.51
	우울 2	6.03	4.32	.69	-.03
	우울 3	6.97	2.92	-.36	-.36
자살생각	자살욕구	4.62	4.16	.66	-.73
	자살태도	1.64	1.19	2.11	6.33
	자살준비	2.44	1.84	1.31	1.17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63**	1															
3	.58**	.66**	1														
4	.61**	.54**	.62**	1													
5	.46**	.42**	.36**	.26**	1												
6	.32**	.37**	.34**	.31**	.41**	1											
7	.34**	.44**	.46**	.31**	.62**	.64**	1										
8	.36**	.27**	.27**	.28**	.54**	.43**	.51**	1									
9	.25**	.41**	.47**	.33**	.51**	.62**	.65**	.45**	1								
10	.22**	.31**	.43**	.31**	.44**	.41**	.51**	.33**	.48**	1							
11	.31**	.30**	.42**	.28**	.45**	.43**	.56**	.36**	.51**	.61**	1						
12	.26**	.33**	.39**	.23**	.52**	.45**	.57**	.37**	.56**	.57**	.65**	1					
13	.22**	.29**	.23**	.21**	.51**	.26**	.42**	.25**	.34**	.52**	.47**	.50**	1				
14	.21**	.22**	.17**	.19**	.41**	.29**	.46**	.29**	.45**	.37**	.51**	.45**	.34**	1			
15	.24**	.23**	.12**	.23**	.31**	.33**	.59**	.34**	.51**	.32**	.54**	.56**	.37**	.47**	1		
16	.19**	.12*	.21**	.11*	.42**	.26**	.36**	.26**	.42**	.44**	.42**	.38**	.32**	.45**	.57**	1	
17	.18**	.21**	.18**	.17**	.36**	.30**	.45**	.26**	.47**	.40**	.44**	.39**	.31**	.52**	.57**	.43**	1

주. 1. 정서적 학대 전제, 2. 동기, 3. 행동의 결과, 4. 행동의 차원, 5. 자기체계 손상 전제, 6. 주체적 자기손상, 7. 대상적 자기손상, 8. 자기조절손상, 9. 관계적 자기손상, 10. 우울 전제, 11. 우울 1, 12. 우울 2, 13. 우울 3, 14. 자살생각 전제, 15. 자살욕구, 16. 자살태도, 17. 자살준비.

* $p < .05$. ** $p < .01$.

으로 각 변인들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자살생각의 하위요인($r = .11 \sim .23, p < .05$)과, 자기체계 손상의 하위요인($r = .27 \sim .47, p < .01$), 우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r = .21 \sim .42, p < .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체계 손상과 자살생각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6 \sim .59, p < .01$), 우울의 하위요인과의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5 \sim .57, p < .01$). 마지막으로, 우울과 자살생각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31 \sim .56, p < .01$).

3. 정서적 학대, 자기체계 손상,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수집한 자료간의 일치정도를 검정한 결과, $\chi^2 = 158.385(df = 59, p < .001)$, TLI = .942, CFI = .962, RMSEA = .068(90% 신뢰구간: .055~.081)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서적 학대, 자기체계 손상, 우울이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가 자기체계 손상 및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이 지지되었다.

구조모형의 분석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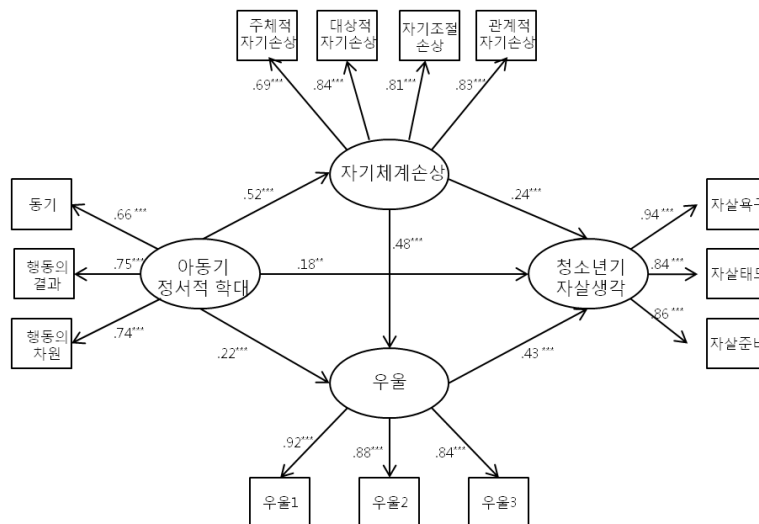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 $p < .01$. *** $p < .001$.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정서적 학대 → 자살생각	.45	.12	.18**
정서적 학대 → 자기체계 손상	.99	.12	.52***
자기체계 손상 → 자살생각	.27	.03	.24***
정서적 학대 → 우울	.21	.02	.22***
우울 → 자살생각	.31	.08	.43***
자기체계 손상 → 우울	.64	.07	.48***

** $p < .01$. *** $p < .001$.

모형과 각 계수의 모수추정치 및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자기체계 손상($\beta = .52, p < .001$)과 우울($\beta = .22, p < .001$), 그리고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beta = .18, p < .01$)의 계수들이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자기체계 손상은 우울($\beta = .48, p < .001$)과 자살생각($\beta = .24, p < .001$)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직접 경로 또한 유의하였다($\beta = .43, p < .001$).

4.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우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하고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간접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두 변인 간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청소년기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18, 간접효과는 .32, 전체효과는 .5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은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보다는 자기체

표 4. 자살생각 관련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정서적 학대	자기체계 손상	.52	-	.52
	우울	.22	.25	.47
	자살생각	.18	.32	.50
자기체계 손상	우울	.48	-	.48
	자살생각	.24	.21	.45
우울	자살생각	.43	-	.43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총 간접효과	개별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서적 학대 → 자살생각	.32		-	-
정서적 학대 → 자기체계 → 자살생각		.12**	.02	.07
정서적 학대 → 우울 → 자살생각		.09**	.01	.09
정서적 학대 → 자기체계 → 우울 → 자살생각		.11**	.01	.08

** $p < .01$.

계 손상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해한 후,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의 매개효과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유의성에 대한 판단은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한 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서적 학대경험으로부터 자살생각으로 가는 모든 간접경로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서적 학대경험이 자기체계 손상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 정서적 학대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의 단순매개효과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경험이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생각에 미치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의 간접효과가 우울($\beta = .12, p$

$< .01$)보다 자기체계 손상($\beta = .09, p < .01$)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을 모두 포함하는 간접효과($\beta = .11, p < .01$)가 우울의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복합외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간주하는 외상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이로써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자기체계 손상, 우울,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청소년기 자살생각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비롯하여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자기체계 손상, 우울,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이르는 모든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였는데, 다른 경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경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상의 경험 그 자체가 일으키는 심리적 문제보다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특성적인 변화를 일으켜 일련의 부적응 및 심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인혜, 송현주, 2014; Evans, Hawton, Rodham, Psychol, & Deeks,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경로들 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자기체계 손상으로 가는 경로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체계 손상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발달적으로 취약하고 자기(self)가 채 형성되고 공고화되기 전인 아동기에 학대와 같은 복합외상을 경험할 경우, 그 후유증으로써 자기체계의 전반적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Courtois & Ford, 2009; Fonagy & Target, 2006; Herman, 1992)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초기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할수록 청소년기에 이르러 우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 학대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울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은정, 김진숙, 2008; 조옥자 2005;

Sigfusdottir et al., 2013)와 일치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조은경, 2015)와 같이 자기체계 손상에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기체계 손상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계수보다 큰 것을 고려할 때, 추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 시 자기체계 손상도 주요한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기체계의 발달적 변화가 우울의 병인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attle et al., 1988)와 유사하게 자기체계 손상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기체계 손상은 우울에 대한 치료적 접근 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우울에서 자살생각으로의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미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김현순, 김병석, 2008; 추경진, 이승연, 2012)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살생각으로의 경로계수가 변인들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울은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 속 자기 사이의 괴리감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데(신현균, 2006), 자신에 대하여 탐색하고 알아가는 청소년 시기는 그 어떤 발달시기보다 이 괴리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임진, 김은정, 2012)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우울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한 각 변인들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사이에서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순 및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자기체계 손상을 통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단순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한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이중매개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이 단일한 요인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의 입장(Mosciki, 1997)과 상충되는 것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과 점진적 발달과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보았을 때, 자기체계 손상의 단일 간접효과와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으로 가는 이중 간접효과가 우울의 단일 간접효과보다 작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체계 손상은 그 자체만으로 우울 및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우울에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외상을 겪은 내담자의 치료 시 우선적으로 자기체계의 전반적 손상 정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자기체계는 추후 성인기의 건강한 자기체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체계의 손상이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을 고려할 때, 추후 청소년 상담 시 자기체계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해나간다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심리적 복합외상의 하나로 간주하는 외상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복합외상의 결과로 자기체계 손상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학대 경험의 심리적 후유증과 우울 및 자살 문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 것은 물론 치료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특히, 자기라는 개념은 자신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하는 개념이므로(한수경, 정남운, 2014) 치료 시 유용한 사례개념화의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체계 손상이 자살생각을 촉발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기체계 전반에 대한 접근은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기 이전에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취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손상된 자기체계를 조기에 변화시킴으로서 자살생각에 작용하는 우울을 조기에 차단하는 치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보이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치료적 변화 기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체계 손상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및 완충하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여러 매개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학대 경험은 되돌릴 수 없으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자기체계 손상 및 우울은 치료적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의

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비록 선행연구를 통하여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였고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회고적 보고를 통하여 과거 외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반면, 그 외의 자기체계 손상, 우울, 자살생각을 동 시점에서 측정하였으므로 이들 간 시간적, 인과적 관계를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겠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하여 변인들 간 선후관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은 발달시기 상 내적으로는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외적으로는 교우관계 및 학교 성적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상태적 경험인 우울을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경험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술하였던 종단적 연구설계시 개인 내적인 변화는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스트레스를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같은 다른 학대 경험이 있는 피험자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닌다. 아동학대는 한 가지 유형만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학대 유형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보건복지부, 2015),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학대 유형을 통제하여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시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 자기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응답자의 기억과 실제 학대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 경험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반응의 왜곡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 문은식, 차미영 (2011).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25(2), 277-293.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강도와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91-216.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은정, 김진숙 (2008).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9(4), 1505-1520.

- 김인혜, 송현주 (2014).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65-78.
-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01-219.
-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정서적 학대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53-380.
- 김효정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17(2), 132-138.
- 박 경 (2004). 청소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2(2), 96-106.
- 박 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 보건복지부 (2015). 2014 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송영이, 송로사 (2015).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영성,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07-334.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복기, 이성진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4, 281-318.
- 신현균 (2006). 청소년의 신체증상 경험에서 부정적 정서의 영향 및 정서표현과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27-746.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우체영, 박아청, 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임숙빈, 허명륜, 김세영, 안혜영, 강섫별, 김미송, . . . 조미소 (2014). 심리적 탄력성과 자기 통제력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3(4), 278-287.
- 임 진, 김은정 (2012). 청소년의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9(1), 279-306.
- 장용환, 송지혜 (2010).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2) 80-104
- 장진이, 안현의 (2011).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359-385.
- 장희순, 이승연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9-45.

- 전한가람, 전덕인, 홍현주, 홍나래, 박은희, 정명훈 (2013). 주요 우울 장애 환자에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살시도의 관련성: 예비연구.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4(4), 180-185.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조옥자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조은경 (2015). 대학생의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아라 (2015). 아동기 피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자살행동 관계: 인지적 비유연성과 우울,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전검구,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개발. *한국심리학회: 건강*, 6(1), 59-76.
- 추경진, 이승연 (2012).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청소년과 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31-53.
- 통계청 (2015). 2013 사망원인통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한수경, 정남운 (2014).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49-168.
- 홍나미 (2012).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 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1), 151-175.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황소연, 방희정 (2012). 유아의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3), 147-165.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 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llen, J. (2001). *Traumatic relationships and serious mental disorders*. Chichester, England: Wiley & Sons.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l-Fayez, G. A., Ohaeri, J. U., & Gabo, O. M. (2012). Prevalence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abuse among a nationwide sample of Arab high school students: Association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1), 53-66.
- Atra, M. C., Langhinrichsen-Rohling, J., Bowers, D., & O'Brien, N. (2007). Differential correlates of multi-type maltreatment among urban youth. *Child Abuse and Neglect*, 31,

- 393-415.
- Battle, J., Jarratt, L., Smit, S., & Precht, D. (1988). 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of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62, 999-1005.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renson, A. B., Wiemann, C. M., & McCombs, S. (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5(11), 1238-1242.
-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 . . Lyaudaud, J.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 390-400.
- Courtois, C. A., & Ford, J. D. (2009). *Treating complex traumatic stress disorders: An evidence-based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royle, K. L., & Waltz, J. (2007). Subclinical self harm: Range of behaviors, extent, and associated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332-342.
- Evans, E., Hawton, K., Rodham, K., Psychol, C., & Deeks, J. (2005). The prevalence of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 based studi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 239-250.
- Fan, X. (2003). Using commonly available software for bootstrapping in both substantive and measurement analys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24-50.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L.,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 Target, M. (2006). The mentalization-focused approach to self 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0, 544-576.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Kaplan, S. J., Pelcovitz, D., & Labruna, V.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1: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J., & Cicchetti, D. (2006).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system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3), 624-639.
- Lee, V., & Hoaken, P. N. (2007). Cognition, emotion, and neurobiological development: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ltreatment

- and aggression. *Child Maltreatment*, 13(3), 281-298.
- Mosciki, E. K. (1997). Identification of suicide risk factors using epidemiologic studi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 499-517.
- OECD (2015). *OECD Health statistics: Suicides*.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 and resilience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5), 547-56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inherz, H. Z., Tanner, J. L., Berger, S. R., Beardslee, W. R., & Fitzmaurice, G. M.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7), 1226-1232.
- Salo, J., Punamaki, R. L., & Qouta, S. (2004). Associations between self and other representations and posttraumatic adjustment among political prisoners. *Anxiety Stress and Coping*, 17(4), 421-440.
- Sigfusdottir, I. D., Asgeirsdottir, B. B., Gudjonsson, G. H., & Sigurdsson, J. F. (2013). Suicidal ideations and attempts among adolescents subjected to childhood sexual abuse and family conflict/violence: The mediating role of anger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Adolescence*, 36, 1227-1236.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Kral, M. J., Iany, A. M., & Ellio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41-252.

1 차원고접수 : 201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5. 11. 12.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1.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a Traumatized Self-System and Depression

Chu, Kyoung-jin

Choi, Jong-ok

UiJeongbu Hospital, Gyeonggi Provincial Medical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dolescent suicide ideation, a traumatized self-system, and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elf-report data from 366 adolescents (168 male and 198 fema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a traumatized self-system or depression. Second, double-mediation effects of a traumatized self-system and depression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 suicide ideation were also significant. This study proved that a traumatized self-system, a relatively new concept just introduced in previous studies, was a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 for suicide ideation, serving as an intervening variable of develop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 who had suffered emotional maltrea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for individuals who experienced emotional maltreatment as children and for those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with adolescent suicide ideation.

Keywords: suicidal ideation, emotional maltreatment, traumatized self-system, depression, adolescent